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그의 ㉠주검을 보고 나니 마음이 ㉡아프다.
- ㉢얼음이 녹아 ㉣흐른 ㉤물을 보니 마음이 따뜻하다.

- ① ㉠ : 앞말이 ‘죽다’라는 본뜻에서 멀어져서 소리대로 적은 것이겠군.
- ② ㉡ : 접미사 ‘-브-’가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못하고 일부 어근에만 결합해서 소리대로 적은 것이겠군.
- ③ ㉢ : 어근에 접미사 ‘-음’이 결합한 후에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어서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겠군.
- ④ ㉣ : 용언의 어간 ‘흐르-’와 어미 ‘-(으)ㄴ’이 구별되도록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겠군.
- ⑤ ㉤ : ‘물’이라는 체언의 의미가 쉽게 파악되도록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겠군.

2. [A]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번은 그런 일도 있었지.
- ② 한국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다.
- ③ 집을 떠나온지 어언 3년이 지났다.
- ④ 얼마인지 가격이나 한번 물어봐야지.
- ⑤ 내가 몇 등일지 마음엔 걱정이 가득했다.

말을 글자로 적을 때 사람마다 다르게 적는다면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혼란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 ‘한글 맞춤법’이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다.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발음 그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었다. 예를 들어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 ‘있이’, ‘있만’을 발음대로 적으면 ‘이피’, ‘임만’인데, 사람들이 다르게 적힌 형태를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있’이라는 본래 형태를 떠올려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형태를 ‘있’으로 고정하여 적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먹어’, ‘먹는’처럼 용언의 어간과 어미도 구별하여 적는다. 즉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은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어근과 접미사, 용언과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쓰일 때는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기도 하고 소리대로 적기도 한다.

- (ㄱ) 그는 웃음을 지으며 마감 시간을 확인했다.
- (ㄴ) 방에 들어간 그는 사라진 의자를 발견했다.

(ㄱ)에서 ‘웃음(웃+-음)’은 접미사 ‘-음/-口’이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므로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었다. 이와 달리 ‘마감(막+-암)’은 접미사 ‘-암’이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었다. (ㄴ)에서 ‘들어간’은 앞말인 ‘들어’에 ‘들다’의 뜻이 유지되고 있어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었지만, ‘사라진’은 앞말이 본뜻에서 멀어져 그 의미가 유지되지 않아 소리대로 적었다.

한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는 어미 ‘-(으)ㄴ지, -(으)르지’의 일부일 때는 띄어 쓰지 않지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앞말과 띄어 쓴다. 또한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낼 때는 ‘한번’이라고 쓰지만, ‘번’이 일의 횟수를 나타낼 때는 ‘한 번’, ‘두 번’처럼 띄어 쓴다.

3. 다음은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와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음운의 변동에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가 되는 축약, 원래 있던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첨가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운의 변동은 한 단어에서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음운의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음운의 변동 후에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음운의 변동을 탐구해 봅시다.

첫여름[천녀름], 끝인사[끄딘사], 색연필[생년필]  
위 자료를 ‘끝인사’, 그리고 ‘첫여름, 색연필’로 나누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학생: ( ㉠ )를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그럼, ‘첫여름’과 ‘색연필’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은 무엇일까요?  
학생: ( ㉡ )입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 |                          |    |
|--------------------------|----|
| ㉠                        | ㉡  |
| ① 음운의 변동이 두 가지 이상 일어났는지  | 축약 |
| ② 음운의 변동이 두 가지 이상 일어났는지  | 첨가 |
| ③ 음운의 변동 결과 음운의 개수가 줄었는지 | 교체 |
| ④ 음운의 변동 결과 음운의 개수가 줄었는지 | 첨가 |
| ⑤ 음운의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는지  | 탈락 |

4.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습 활동> —

시제는 말하는 때인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때인 사건시와의 선후 관계를 따져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뉘며, 선어말 어미나 관형사형 어미, 부사어 등을 통해 실현된다. 다음 자료를 분석해 보자.

ㄱ.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  
ㄴ. 어제 민수는 학원에 갔다.  
ㄷ. 내일부터 시작할 것이다.  
ㄹ. 네가 먹던 냉면이 맛있겠다.

- ① ㄱ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
- ② ㄴ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 ③ ㄴ과 ㄷ 모두 부사어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 ④ ㄷ과 ㄹ 모두 관형사형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 ⑤ ㄱ, ㄴ, ㄷ 모두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5.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쓰다1** ㉠

【…에 …을】

- ① 붓, 펜, 연필과 같이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 따위에 획을 그어서 일정한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하다.  
    ¶ 연습장에 붓글씨를 쓰다.
- ② 머릿속의 생각을 종이 혹은 이와 유사한 대상 따위에 글로 나타내다.  
    ¶ 그는 요즘 신문에 연재소설을 쓰고 있다.

**쓰다6** ㉡

- ① 혀로 느끼는 맛이 한약이나 소태, 씌바귀의 맛과 같다.  
    ¶ 나물이 쓰다.
- ② 달갑지 않고 싫거나 괴롭다.  
    ¶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지만 언제나 그 맛은 썼다.

- ① ‘쓰다1’과 ‘쓰다6’은 사전에 각각 다른 표제어로 등재되는 동음이의어이다.
- ② ‘쓰다1’과 ‘쓰다6’은 모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다의어이다.
- ③ ‘쓰다1’은 ‘쓰다6’과 달리 주어 이외의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 ④ ‘쓰다1’은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고, ‘쓰다6’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 ⑤ ‘쓰다6㉡’의 예로 ‘철수가 편지에 뭐라고 썼어?’를 추가할 수 있다.

[6~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말을 글자로 적을 때 사람마다 다르게 적는다면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혼란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 ‘한글 맞춤법’이다.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다.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발음 그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었다. 예를 들어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 ‘있이’, ‘있만’을 발음대로 적으면 ‘이피’, ‘임만’인데, 사람들이 다르게 적힌 형태를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있’이라는 본래 형태를 떠올려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형태를 ‘있’으로 고정하여 적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먹어’, ‘먹는’처럼 용언의 어간과 어미도 구별하여 적는다. 즉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은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어근과 접미사, 용언과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쓰일 때는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기도 하고 소리대로 적기도 한다.

(ㄱ) 그는 웃음을 지으며 마감 시간을 확인했다.  
 (ㄴ) 방에 들어간 그는 사라진 의자를 발견했다.

(ㄱ)에서 ‘웃음(웃+-음)’은 접미사 ‘-음/-口’이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므로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었다. 이와 달리 ‘마감(막+-암)’은 접미사 ‘-암’이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었다. (ㄴ)에서 ‘들어간’은 앞말인 ‘들어’에 ‘들다’의 뜻이 유지되고 있어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었지만, ‘사라진’은 앞말이 본뜻에서 멀어져 그 의미가 유지되지 않아 소리대로 적었다.

한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는 어미 ‘-(으)ㄴ지, -(으)르지’의 일부일 때는 띄어 쓰지 않지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앞말과 띄어 쓴다. 또한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을 나타내거나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낼 때는 ‘한번’이라고 쓰지만, ‘번’이 일의 횟수를 나타낼 때는 ‘한 번’, ‘두 번’처럼 띄어 쓴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노름 같은 것에는 아예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 좋다.
  - 놀이에서 이기려고 속임수를 쓴 내가 매우 부끄럽다.
  - 잠을 푹 자니 웃음이 절로 났다.

- ① ‘같은’은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구별되도록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겠군.
- ② 체언의 의미가 쉽게 파악되도록 ‘않는’과 같이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었군.
- ③ ‘놀이’와 ‘노름’의 어근은 같지만 어근의 본뜻이 유지되는 여부에 따라 표기 방법이 달라진 것이군.
- ④ ‘부끄럽-’은 접미사가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못하고 일부 어근에만 결합해서 소리대로 적은 것이겠군.
- ⑤ ‘잠’과 ‘웃음’은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한 후에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어서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겠군.

7. [A]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춤 한번 잘 춘다.
- ② 누구나 한 번은 겪은 일이다.
- ③ 감기가 왔는지 몸이 으슬으슬 춡다.
- ④ 강아지가 집을 나간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 ⑤ 무엇보다 해야 할 지 덤벼거리다 시간만 보냈어.

8. 다음은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활동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음운의 변동에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가 되는 축약, 원래 있던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첨가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운의 변동은 한 단어에서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음운의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음운의 변동 후에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음운의 변동을 탐구해 봅시다.

결단력[결판녁], 먹히다[머키다], 넓다[널따]

- ① ‘결단력’과 ‘넓다’는 음운의 변동이 두 가지 이상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② ‘결단력’과 ‘넓다’는 교체현상이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③ ‘결단력’과 ‘먹히다’는 음운의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④ ‘먹히다’와 ‘넓다’는 축약 현상이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⑤ ‘먹히다’와 ‘넓다’는 음운의 변동 결과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시제는 말하는 때인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때인 사건시와의 선후 관계를 따져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뉘며, 선어말 어미나 관형사형 어미, 부사어 등을 통해 실현된다. 다음 자료를 분석해 보자.

- ㄱ. 나는 곧 비행기를 타고 떠난다.
- ㄴ. 넌 어제 거기서 무엇을 보았니?
- ㄷ. 집에 갈 사람은 모두 나와라.
- ㄹ. 어제 내가 본 물건은 이게 아니다.

- ① ㄱ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한다.
- ② ㄴ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 ③ ㄱ과 ㄷ 모두 부사어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 ④ ㄷ과 ㄹ 모두 관형사형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 ⑤ ㄱ, ㄴ, ㄷ 모두 선어말 어미를 활용한 시간 표현이 나타난다.

10.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르다1 ㉠

【…에】

- ①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 자정에 이르러서야 집에 돌아왔다.
- ②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 죽을 지경에 이르다.

이르다3 ㉢

【…보다】

- ①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앞서거나 빠르다.  
    ㉣ 올해는 예년보다 첫눈이 이른 감이 있다.

- ① ‘이르다1’과 ‘이르다3’는 사전에 각각 다른 표제어로 등재되는 동음이의어이다.
- ② ‘이르다1’과 ‘이르다3’는 모두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 ③ ‘이르다1’은 ‘이르다3’와 달리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다의어이다.
- ④ ‘이르다1’은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르다3’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 ⑤ ‘이르다1㉠’의 예로 ‘약속 장소에 이르다.’를 추가할 수 있다.